

'93 제1검정소 우수농장상 수상농장 경기양돈



취재 : 박정렬 기자

본회 제1종돈능력검정소가 '93년도 우수농장으로 선정한 경기양돈(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2리 2반 665, 대표: 이윤원).

경기양돈은 지난 한 해 동안 제1검정소에 12두의 챔피언돈을 출품했고 평균선발지수는 224점, 총합격두수 92두로 69.7%의 합격률을 보였다.

경기양돈은 제1검정소가 챔피언돈 배출횟수, 출품두수, 평균선발지수, 합격률, 합격두수 등을 감안해 산출한 농장평가 점수 219.7점으로 '93년도 출품농장중 2위를 차지해 지난 2월

21일 '93년도 제1검정소 우수농장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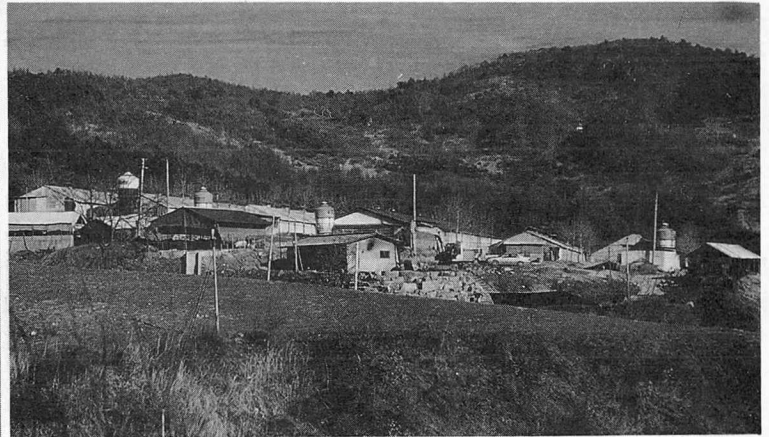
경기양돈이 검정소에 종돈을 출품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2년, 출품을 시작한 지 2년만에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것이다.

경기양돈 이윤원 사장은 "그간 우수농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자신이 양돈을 시작하고 종돈장을 경영하게 되기 까지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고 도움을 주었던 세왕축산 양상렬 부장님께도 감사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기양돈은 처음 영국과 아

일랜드 등지에서 종돈을 수입, 기초돈으로 이용했으며 지금은 거의 자체농장에서 순종을 유지, 개량해 나간다고 한다. 또한 철저한 관리와 관리의 생력화를 위해 순종돈 생산과 개량에만 전념하는 전문종돈장이다.

이 사장과 4명의 직원들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돼지를 마치 자식 기르듯 사랑과 정성으로 관리해 PED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았던 올 겨울에도 철저한 방역·위생관리로 전혀 질병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극히 일부지만 환돈은 즉시 분리해 치료 또는 도태시킴으로



써 건강한 돼지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질병관리를 하고 있다.

이윤원 사장은 “경험은 적지 않지만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우수돈을 계속 발굴, 유지하고 자돈때부터 철저히 관리해 온 것이 우수농장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다”고 말한다.

경기양돈은 또한 종돈의 체형과 강건성을 향상시키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기 위해 종돈장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인 방목장을 설치, 적당한 운동과 일광욕을 시키고 있다.

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쾌적한 돈사환경 만들기에 주력하여 뜻하지

않은 손실의 발생이 적고 돼지들의 성적 또한 좋을 수 있었다고 한다.

질병피해와 성장지연 방지를 위한 적절한 환기와 보온, 체형 및 강건성 제고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 제고를 위한 방목장 운영, 최적영양수준을 고려한 철저한 사양관리 및 질병, 위생관리, 관리자들의 정성스러운 관리가 오늘의 경기양돈을 있게 한 관리의 요체이다.

다만 교통이 비교적 불편한 편이라 겨울이 되고 도로사정이 나빠지면 종돈분양을 원하는 양돈가들이 있어도 농장을 방문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한다.

이윤원 사장은 앞으로의 계

획을 “규모를 늘리기 보다는 욕심내지 않고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다 우수한 종돈을 생산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UR 태풍은 산업전반에 걸쳐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우리 양돈산업도 수입돼지고기와 경쟁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경쟁에서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술향상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생산현장에서는 철저한 관리로 고능력돈, 고품질육을 생산, 수입개방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